

공동체 소식



부활 제6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부활시기' 안내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여: '다' 양식

▣ 첫영성체의 은총을 입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의 정성을 담아 축하합니다.

- 축하식 : 오늘 교중미사 중.
- 대상 : 김로즈 로즈(김지혜 수산나의 녀), 다니엘(박동희 안나의 자) 김정빈 바오로, 김정훈 로베르토(장보혜 프란체스카의 자)

▣ 본당 봄 야외행사

- 일시: 5/13(주일) 11:00미사, 미사 후 행사
- 장소: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본당 성모의 밤 행사

- 일시: 5/18(금) 저녁7:30미사.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14	217	496	136 (3,4절)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중복사
금 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차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첫영성체 학생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 애찬 봉사자

금 주	최은미, 김진미, 조경희
차 주	어머니 날, 아버지들 봉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29	30 명	245 달러	200 달러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를 통하여 참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성자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림 묵상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어 모든 이에게 별처럼 쏟아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될 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용기와 힘이 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쏟아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온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새겨봅시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25-26.34-35.44-48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렸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 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4,7-10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9-17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생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은 하루가 한 시간도 안 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생명력은 죽음도 불사하는 위대한 용기와 힘까지 지닙니다. 이처럼 사랑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성실하게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길은 수월치 않고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삶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려 해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묵묵하게 자신의 삶 안에서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신앙의 증거는 재물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의 계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요구하신 길을 충실히 따른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

치를 되새기는 ‘생명 주일’입니다. 신앙의 실천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생명을 수호하고 존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고 생명의 문화가 활짝 꽃피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생명 수호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신앙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명존중’이라는 교회의 기본적 가치 수호는 예언자로서의 교회 소명입니다.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술자리 농담
‘사랑하는 만큼 따라주세요!’

그 말을 받아넘기는 아름다운 농담
‘사랑하는 만큼 따라주기에는 잔이 너무 작네요.’
하하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5,1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여라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조금은 여유 있어지고 기쁨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누구나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성장통을 하느님 품 안에서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아프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성당은 늘 안식처였습니다. 힘들거나 지칠 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당이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곳도 성당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배웠기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과 같은 자존감도 신앙 안에서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느님의 삶을 배우는 곳이었기에 그분의 발자취와 행적, 그분이 행했던 일과 말씀들이 언제나 제 삶의 기준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향로를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교사 시절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납니다. 하

느님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 한 아이가 도로 위의 화살표를 찍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화살표가 어떻게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화살표는 하느님께 가는 이정표예요”라고. 그 당시 아이의 대답에 깜짝 놀랐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아이의 눈을 빌려 저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너에게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싶다고, 내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씩은 아프고 눈물이 나는 날들을 겪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이정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언제나 내 뒤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제시해주신 길을 벗어나지 않게 큰 품으로 품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기준을 정해 살아 간다면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늘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 전승환 레오 | 작가

교리상식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면서요?

빵을 쪼개는 행위는 유다 풍습으로, 빵을 나눔으로써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일치를 다지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런 전통이 사도 시대에 와서는 함께 빵을 나눔으로써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갈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체 지전 빵을 쪼갬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